

메시, 황제 대관식



1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마라카낭 경기장에서 열린 2021 코파 아메리카(남미축구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브라질을 1-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한 아르헨티나의 에이스 리오넬 메시가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마라카낭 경기장에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팀의 에이스인 리오넬 메시를 행거레 치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르헨티나, 코파 아메리카서 맞수 브라질 꺾고 28년 만에 정상 메시, 4차례 월드컵·5차례 코파 대회 출전 첫 우승 ... MVP 차지

아르헨티나가 남미 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코파 아메리카(남미 축구선수권대회)에서 맞수 브라질을 꺾고 28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아르헨티나는 11일 오전(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마라카낭 경기장에서 브라질과 치른 2021 코파 아메리카 결승에서 전반 22분 앙헬 디마리아의 결승 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에콰도르에서 열린 1993년 대회 이후 28년 만에 코파 아메리카 정상 탈환했다.

아울러 최근 6차례 대회에서 4번이나 준우승에 그친 아쉬움도 털어내고 대회 통산 15번째 정상에 올라 우루과이와 함께 '역대 최다 우승국'이 됐다.

아르헨티나의 에이스 리오넬 메시는 이날 풀타임을 뛰고 메이저대회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바르셀로나(스페인)에서는 술하게 챔피언 자리를 경쟁했던 메시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는 4차례의 월드컵과 5차례의 코

파 아메리카에 나서서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으나 마침내 환풍이에 성공했다.

이번 대회에서 4골 5도움을 올려 득점과 도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메시는 대회 최우수선수(MVP)에도 선정돼 기쁨이 더 컸다.

반면, 2019년 대회 우승팀인 브라질은 대회 2연패 및 통산 10번째 우승 꿈이 깨졌다.

메시와 바르셀로나에서 호흡을 맞췄던 브라질의 네이마르도 이번 대회에서 2골 3도움을 기록하며 팀을 결승까지 이끌었으나

끝내 웃지 못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베네수엘라에서 열린 2007년 대회(브라질 3-0 승) 이후 14년 만에 코파 아메리카 결승에서 만났다. 균형을 깨뜨린 것은 아르헨티나였다.

전반 22분 로드리고 데 파울이 자기 진영에서 한 번에 길게 넘긴 공을 디마리아가 브라질 수비 뒷공간으로 파고들면서 잡았다.

디마리아는 이후 브라질 골키퍼 에데르송이 나온 것을 보고 페널티지역 안 오른쪽에서 왼발로 살짝 띄워 차 골문을 열었다. 디

마리아의 이번 대회 첫 골이었다.

아르헨티나의 선제 득점 후 양 팀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졌다. 전반 26분 브라질 카제미루의 오른발 중거리 슛은 골키퍼 정면을 향했고 3분 뒤 디마리아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정면으로 치고 들어기면서 날린 왼발슛은 수비벽에 막혔다.

전반 33분 메시가 센터서클에서부터 혼자 공을 몰고 간 뒤 페널티아크 왼쪽에서 시도한 왼발슛은 골대를 살짝 벗어났다.

1분 뒤 네이마르의 프리킥은 아르헨티나 수비벽을 뚫지 못했다. 브라질은 볼 점유율을 높여가며 만회 골을 노렸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

후반 38분 브라질의 가브리엘루 바르보사가 골 지역 왼쪽에서 왼발로 슈팅한 공은 수비 맞고 골대 옆 그물을 출렁였다.

아르헨티나는 1분 뒤 상대 골키퍼와 일대일로 맞선 메시가 슈팅까지 이어가지 못해 추가 득점 기회를 날렸으나 끝까지 리드를 지켜내고 남미축구 왕좌를 되찾았다. /연합뉴스

모처럼 잘나가던 KIA “코로나가 야속해”

선수단 코로나 검사 경기 취소 9연패 끊고 5연승 달렸지만 예정된 7경기 중 3경기만 치러

잘 나가던 '호랑이 군단'이 코로나19 암초를 만났다. 7경기가 예정됐던 한 주였지만 KIA 타이거즈는 3경기밖에 치르지 못했다.

3일 두산전이 비로 미뤄지면서 준비됐던 5일 월요일 경기가 비로 취소됐고, 6일에도 비가 오면서 한화와의 원정경기를 치르지 못했다. 또 코로나19로 8일 한화전, 10일 광주 KT전도 취소됐다.

지난 5-7일 서울에서 LG와 경기를 치렀던 한화의 원정 숙소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8일 경기가 취소됐다. 가슴 졸이며 한화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지켜봤던 KIA는 한화 선수단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한숨을 돌렸다.

그리고 9일 KT전을 정상적으로 소화했다. 브룩스의 호투와 선발 전원 안타를 앞세워 10-4 승리를 거두며 5연승 질주에 성공했지만, 10일 KIA의 4연승 도전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이번에는 두산발 코로나가 영향을 미쳤다.

10일 두산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 지난 2일부터 주말 시리즈에서 대결했던 KIA도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온 것이다.

정상적으로 훈련을 진행했던 KIA 선수단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야 했다. 다행히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KIA는 11일 KT전은 정상적으로 소화했다.

하지만 경기 시작까지 사연이 많았다. 포수 한승택이 4일 식당에서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면서 급히 엔트리 변동이 이뤄졌다. 신인 포수 권혁경이 처음 1군에 콜업됐고, 김민식으로 경기를 풀어가려고 했지만 경기 개시를 앞두고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4일 두산전에서 포수 마스크를 썼던 김민식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서 경기 개시가 지연됐다. 부라부라 이정훈을 호출했지만 이날 2군 휴식일이었던 만큼 이정훈은 바로 경기에 투입되지 못했다. 몸을 풀지 못한 이정훈 대신 신인 권혁경이 의도치 않게 선발로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KIA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야속하다. 6월 6승의 부진에 빠졌던 KIA는 7월 에이스 브

룩스의 복귀와 함께 날개를 달았다.

브룩스가 돌아온 1일 NC를 상대로 6-3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5연패와 NC전 6연패에서 탈출했다. 2일에는 김호령의 세 경기 연속 홈런 등을 앞세워 두산을 8-3으로 꺾고 지난해부터 이어졌던 두산전 9연패에서 벗어났다.

4일 두산전 승을 추가한 KIA는 비로 두 경기를 쉬 뒤 진행된 7일 경기에서 연장 11회 승부 끝에 한화를 4-1로 꺾고 4연승을 달렸다. 하지만 8일 코로나로 경기가 취소되면서 KIA는 하루 쉬고 KT를 상대로 9일 5연승을 만들었다.

10일 그러나 또 코로나19 악재를 만났다. 두산전 확진자 발생으로 KIA 선수단도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등 다시 경기가 취소됐다.

브룩스의 복귀와 맹텐까지 11일 복귀전을 준비하면서 선발진이 재구축됐고, 방망이도 상승세를 탔던 만큼 KIA는 코로나 악재로 승수를 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리고 포수 2명이 동시에 빠지면서 올림픽 휴식기까지 남은 경기를 풀어가는데 새로운 고민을 안게 됐다.

한편 코로나19 취소로 등판이 밀린 맹텐은 14일 삼성전을 통해 부상 복귀전을 치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광현, 6이닝 무실점 호투 시즌 4승

전반기 마지막 경기서 3연승

'KK'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시즌 4번째 승리를 따내며 3연승에 성공했다.

김광현은 11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2021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방문경기에서 시카고 컵스를 상대로 선발 등판, 6이닝 5피안타 1볼넷 7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6-0으로 앞선 7회말, 김광현은 승리 요건을 갖추고 마운드를 볼펜에 넣었다.

볼펜이 컵스의 추격을 막으면서 세인트루이스는 그대로 6-0으로 승리, 2연패에서 벗어났다.

이날 승리로 김광현은 올 시즌 전반기 16경기 4승 5패를 기록했다. 평균자책점은 3.39에서 3.11로 낮췄다.

12경기 동안 1승 5패 평균자책점 3.98로 부진했지만, 김광현은 막판 3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며 반등했다.

앞서 김광현은 1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5이닝 1실점)과 6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7이닝 무실점)에서 시즌 2·3승을 거두며 시즌 첫 연승에 성공했고, 이날 컵스전 승리로 3경기 연속 승리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박민지가 11일 경기 파주시 서원밸리CC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보 하우스디오픈 최종라운드 우승 후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연합뉴스

‘대세’ 박민지 또 우승

대보 하우스디오픈 시즌 6승

2021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의 ‘대세’ 박민지(23)가 시즌 6승 고지를 밟으며 투어 새 역사를 썼다.

박민지는 11일 경기도 파주시 서원밸리 컨트리 클럽(파72·6603야드)에서 열린 KLPGA 투어 대보 하우스디오픈(총상금 10억원)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개를 묶어 6언더파 66타를 쳤다.

최종합계 16언더파 200타를 친 박민지는 2위 서연정(26·14언더파 202타)을 2타 차로 따돌리

며 올해 신설된 대보 하우스디오픈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이 우승으로 시즌 6승을 달성한 박민지는 통산 10승도 채웠다.

시즌 상금은 10억원을 넘어 11억원을 돌파했다. 기존 9억4800만원에 이번 우승 상금 1억8000만원을 보태면서 11억2800만원이 됐다.

KLPGA 투어에서 7월에 시즌 6승과 상금 10억원을 돌파한 선수는 박민지가 역대 처음이다.

단일 시즌 6승은 신지애(2회·2007·2008년), 박성현(2016년), 서희경(2008년)을 이어 박민지가 역대 5호다. /연합뉴스